

‘아베 담화’, 과거사 ‘반성’ 넣고 ‘사죄’ 뺀듯

〈내달 발표 예정〉

‘침략’은 중·일관계 미칠 파장 감안해 포함 가능성

‘식민지배’는 거론 안돼...한·일관계 더 악화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넣고 사죄는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사죄’, ‘반성’과 함께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4대 키워드 중 꼽히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경우 침략은 들어가고 식민지 지배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베 담화가 한일관계에 일대 풍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을 명기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 때 언급한 “지난 대전(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산케이 신문은 아베 담화와 관련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제언 보고서에 ‘사죄’라는 단어를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간담회의 의견이 그대로 담화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는 논의 단계에서 빠진 사죄 표현을 아베 총리가 굳이 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침략’은 아베 총리가 제작된 4월 국회

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담화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2차 대전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이는 작년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중인 중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런 반면 ‘식민지 지배’를 담화에 넣을지는 간담회 논의나 일본 언론에서도 거의 쟁점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부정한 적은 없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답

변을 했다.

게다가 이달 초 유네스코 회의 때 일본 대표가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자들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뒤 ‘강제노동’ 인정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식민지 지배를 거론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교정상화 협상 때 한일 정부 간에 불발 여부가 정리지 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를 아베 총리가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다.

결국 아베 담화가 침략을 인정하고 과거 전쟁을 반성하면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 GDP·시가총액서 日 늘리

청일전쟁 120년만에 역전

군사력·IT 산업서도 앞서

중국이 경제와 국방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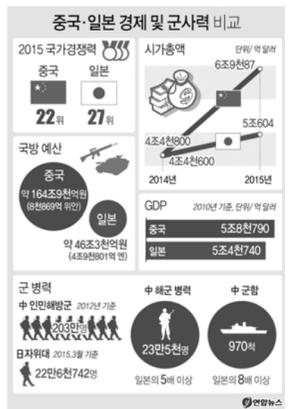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하면서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넘어서고 있다.

불과 과거 청일전쟁(1894년)과 중일전쟁(1931년)에서 일본에 의해 시련을 겪은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의 자리를 하나씩 빼앗아 나가고 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GDP·시가총액서 일본 늘리=‘경제 공룡’으로 불리던 일본이 장기 침체 끝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중국은 2010년 연간 GDP 집계 결과, 5조8790억 달러(약 690조원)를 기록해 일본(5조4740억 달러)을 앞질렀다.

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의 맹추격이 이어져 지난해 주식시장 시가총액 집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작년 한해에만 전년 대비 33% 성장해 시가총액 4조4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은 3.2% 줄어든 4조4600억 달러에 불과했다.

현재도 중국 증시 시가총액은 6조987억4000만 달러로 전 세계 증시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5조603억



5700만 달러로 한참 뒤진다. 지표상으로 중국이 앞서나가면서 세계경제 질서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 막강 군사력·IT산업서도 앞선다=중국은 병력 규모와 방위 예산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예산은 2015년 기준 8869억위안(약 164조9000억원), 군 병력은 2012년 기준 230만명, 무장 경찰은 66만명에 이른다.

IT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간 일본은 ‘로봇 강국’으로 산업용 로봇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국제로봇공학연맹(IFR)은 밝혔다. 과거 소니, 샤프 등 정쟁한 일본 IT 기업들도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IS, 터키 내 첫 테러?

터키 이스탄불에서 21일(현지시간) 좌익 강경파들이 전날 수루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이날 수루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1명의 신원을 파악했다”며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자폭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IS 소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터키 땅에서 IS에 의해 자행된 최초의 테러로 최근 IS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터키 정부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미, 25일부터 한·중·일과 북핵 조율 착수

‘이란 핵합의 이후’ 처음 美 6자회담 특사 3개국 순방

미국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이란과의 핵합의를 끝낸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과 북핵 해법에 관한 공식 조율에 착수한다.

21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시드니 사일라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선다.

사일라 특사는 이번 순방에서 이란 핵협상 이후 변화된 국제 정치환경 속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어, 기존 정책 기조의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 핵협상 이후에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현행 제재와 압박을 유지·강화해나가는 쪽으로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율바한기안으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 서해 동창리에 67m 높이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북한이 중국에 가까운 서해 발해만 인근 지역에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3년 말부터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시작한 북한은 최근 17m를 더 높여 67m 크기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2일 밝혔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세워진 이 장거리 로켓 발사대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로켓(30m) 보다 2배 크기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증축된 동창리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3호보다 길이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책 과시를 위해 평양 미사일 행장에서 스커프도 노동 등 각종 미사일과 240mm 방사포 등 포병 장비, 장갑차 등 수송장비 등을 집결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라고 했다는 첩보를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사우나〉

안보회관 앞 (구호전 사거리)

- 유동인구 많음
- 인테리어 시공완료

사우나 직접운영시 (월수익 1,800만!!)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동 2부 코너 (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택1개) 매매가1억

010-6834-4800
010-6832-97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22동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씨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 3층 88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씨(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씨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안 상아아파트19평 (상기밀원지예)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은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J(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1. 서구 치평동 (토44.7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3억4천 2. 광안구 쌍안동(토99㎡, 건239㎡)감평가 2억5천~최저가 1억1천 3. 동구 금동(토19㎡, 건149㎡)감평가 5억1천~최저가 1억2천 4. 동구 금동(토18㎡, 건34㎡)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4천 5. 서구 치평동 4층중3층 4.2㎡, 건18.6㎡)감평가 2억9백~최저가 1억1천6백	1. 동구 수기동(근린시설)토130㎡,건319㎡ (1층,청고,숙박,2층~3층,소매점,4~5층,사무실) 감평가 10억7천~최저가 7억5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2. 북구 오차동 (근린시설1층~4층사무실) (토114㎡, 건200㎡)도로점 감평가 4억2천 ~최저가3억2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3. 전남 광양시중동 (근린시설) (토239㎡, 건991㎡) (도로점 개발추진 투자적합) 감평가 26억7천~최저가 15억
1. 북구 운암동 (토66㎡, 건193㎡)감평가 7억2천~최저가 5억 2. 광안구 중동(토232㎡, 건991㎡)감평가 26억7천~최저가 18억7천 3. 북구 오차동(토114㎡, 건199㎡)감평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4. 광안구 남산동(토258㎡, 건150㎡)감평가 4억8천~최저가 3억5천 5. 서구 쌍촌동(170㎡, 건97㎡)감평가 4억~최저가 2억8천 6. 북구 중흥동 (12㎡, 530㎡)감평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7. 동구 수기동(토130㎡, 건320㎡)감평가 1억7천~최저가 7억5천	4. 남구 주월동 (근린시설) (토71㎡, 건179㎡) (학교부근, 코너지리, 개발추진) 감평가 4억5천~최저가 4억5천
공장/모텔/주유소	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근린시설) (토2233㎡, 건4762㎡)롯데마트) 감평가 77억~최저가35억
1. 광안구 남산동(토414㎡, 건223㎡)감평가 8억6천~최저가 6억 2. 전남 장성 북이면 (토 2826㎡, 건614㎡)감평가 41억 ~최저가 11억9천 3. 광안구 쌍안동(숙박시설) (토154㎡, 건415㎡)감평가 15억~최저가10억5천 4. 북구 일곡동(공정)토246㎡, 건2757㎡)감평가 271억~최저가 150억 5. 광안구 월계동 (숙박시설)토460㎡, 건504㎡)감평가 34억5천~24억2천 6.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토50㎡, 건373㎡)감평가 11억~4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